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지 못한 때에, 부모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청소년주일로 지킵니다. 푸른꿈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 임채정 선교사님의 건강(심장스텐트 시술)과 조남희 선교님의 건강(허리디스크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제 38 - 19 호

2021년 5월 9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믿음의 부모

5월은 가정의 달로 매 주 특별한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5월은 여러 날들이 제정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생각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아버지주일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 하는 새 왕이 애굽땅의 왕이 되었을 때에 애굽왕은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하게 인구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을 느껴 인종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아들을 낳아 믿음으로 3개월 동안을 숨겨 길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라가고 끝날 줄 모르는 잔인한 정책에 더 이상 아이를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자 아이의 부모는 나무 상자를 만들고 상자 안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이고, 이 믿음의 부모님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랑하시리. 그가 너를

##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요게벳의 노래(최에스더, 염평안)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에게 많이 불리우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실제로 그런 힘을 발휘하려고 무척 애씁니다. 그 어떤 일보다 나의 욕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자녀와 관계된 일이라면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수 없이 오고갑니다. 그러나 금방 알게 됩니다. 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말이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에게 부모의 삶의 흔적들을 보이며 그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 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왕이 했던 죽음의 위협,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부모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는 복을 받은 우리 모두는 나의 자녀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길 원합니다. 부모로서 내려야하는 최선의 선택은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 한주간 말씀

“ 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창세기 31장

제목 : 라반과 야곱이 언약의 돌무더기를 만든다.

인도 : 최기찬 전도사                      기도 : 이어람 집사

찬송 : 563 565 559 569 299 490

1-21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라반에게서 태어난 땅으로 떠나다.

해석 : 야곱이 라반을 떠난 것은 잘 대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창28:13-15)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용 :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따르자.

- 1) 하나님께서 사랑방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소명을 따라 공동체적인 삶을 살자.
- 2) 개개인을 사랑방공동체로 부르신 것도 뜻하신 바가 있어서 부르심을 알고 받아들이다.(순종하자)

22-42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다.

해석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길을 가는 자녀들의 고난과 수고를 아시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다.

적용 :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굳게 믿고 고난과 수고를 견디자. 하나님께서 고난과 수고를 아시고 도와 주실 것을 믿자.

43-55 라반과 야곱이 언약의 돌무더기를 만든다.

해석 : 라반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맹세하였다.(하나님께서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시며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적용 :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자. 사람을 대할 때 정성과 예의, 친절하게 대하여 하나님을 전하자.

## 요즘(선교지 소식)

봄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요즘이다. 매일 눈을 뜨면서, 매일 밥상에 앉으면서, 으레 드리는 내 감사의 농도가 달라졌음을 나만 안다. 좀 아파 봤기 때문이다. ㅎㅎ

그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지 모른다. 형통한 하루가 아니어도 그대로 좋다. 척척 마음이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귀하다..

많은 삶이 사랑방이란 바구니에 담겨 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버무려져서 따로 떼어낼 수 없는게 많지만 바구니속 하나를 꼭 집어 내자면 선교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소개글이 되어 무림리에서 읽히기도 하고 먼 나라에서 읽히기도 한다. 5월, 선교사님들의 최근 소식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어 본다.

한결같은 사랑방, 미리내 사랑방이 섬기는 요르단은 현재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긴 하지만 부활절을 은혜롭게 보내셨고, 코로나로 난민들의 삶이 더 궁핍해져서 여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임채정선교사님은 4월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서 회복중인데 아직까지 허벅지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체류비자를 다시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중이니 순조롭게 연장되길 기도 요청 하셨습니다.

우리기쁜 사랑방, 들꽃 사랑방이 섬기는 대만은 지난 주보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길 사랑방이 섬기는 타직은 조남희선교사님께서 4월에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회복중에 계십니다. 사모님의 건강도 좋은편이 아니니 두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러시아 강태원 선교사님도 며칠전 소식을 보내오셨는데 비슈켈 회교권 기독교인 선교가 원만히 운영되고, 제자 사역을 통해 일꾼이 배출되길 기도하고 계십니다. 러시아 장학헌금은 현지 학생의 졸업으로 6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섬겨 주셔서 목회자 자녀 둘이 학업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고, 무척 감사함을 전하셨습니다.

방에서 섬기지는 못하지만 항상 소통하고 기도로 함께 하는 일본 최장수 선교사님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도제목 중 하나를 나누자면 '일본의 주님의 교회들이 위축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 하여야 할 두 곳, 의탄교회와 용계리 교회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사각지대에서 어려우신 노인분들과, 어려운 아이들을 섬기고 계신데 사랑방교회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에 힘이 난다고 하였고, 동네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전도하고 싶은게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선교위를 대표해서 항상 마음과 물질로 함께해 주시는 사랑방식구들을 존경하고 축복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아플때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고 흘려 보내겠습니다.....

미리내 사랑방(선교위원장) 하경임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44 : 12-15 인도자  
44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 대표기도 )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199 다함께  
다함께  
이용신장로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에베소서 6 : 1-3 설교자  
579 사랑방  
“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 권재만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31 다함께  
인도자  
455(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영동 전경희 / 봉헌위원 : 전경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엡6:1> 오늘 말씀의 내용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소서는 연합과 하나됨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가정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렇게 했을 때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믿음 안에서의 원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 육신의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를 돌아봐 부모와의 관계를 바로 잡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원리를 이해하니 세상의 일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복인 이 땅에서의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말과 행실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 외에는 부모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그와 같이 교회의 어르신들을 공경하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전도사 / 기도 : 이승호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화요일에 어린이날 잔치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미니, 고양이, 토끼로 분장하고 꾸러기를 맞이했고 꾸러기들은 나비, 꽃, 공룡 등으로 손과 마스크를 멋지게 장식해 보았습니다. 보물찾기를 해서 선물도 받았지요. 점심에는 요리선생님들께서 스파게티와 순살닭강정을 만들어 주셔서 신나게 먹었어요. 원래는 오후에 경운기를 탈 예정이었는데 비가 와서 어린이와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어요. 돌고래반은 재미있게 잘 보았고 요 꼬끼리반은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어린이날 하루 쉬고 다시 만난 목요일. 자연예배당 앞에 참으로 깨끗한 경운기가 서있었어요. 아침 모임을 끝내고 좀 있다 나오니 어느새 경운기에 알록달록 풍선이 달려 있고 꾸러기들이 오르내리기 편하게 발판이 되어줄 의자도 놓여있었어요. 꾸러기에서 빼놓으면 안 될 추억이라는 부모님들의 의견과 꾸러기를 많이 예뻐하시는 나집사님의 배려로 경운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돌고래반이 먼저 타고 동생들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경운기 소리가 들려서 언니, 오빠가 탄 경운기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며 기다렸어요. 꼬끼리반 차례가 되어 동생들이 경운기를 타고 출발하자 돌고래반 친구들이 바빠졌어요. 주차장 쪽으로 움직이는 경운기를 따라가며 손을 흔들어 주고 마당에서 경운기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달려가며 동생들을 위해 손을 흔들고 환호를 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경운기가 돌아와 멈추니 동생들 신발까지 준비합니다. 그냥 놀아도 되는데 먼저 경운기를 탔다고 나중에 타는 동생들을 위해 마음을 내어 움직입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배움과 가르침

을 힘써 지키십시오. (엡 4: 2, 3절 말씀)

어린이학교 5월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감사의 달 5월에 부모와 자녀 사이든, 스승과 제자 사이든, 서로 서로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린이들은 아침 여는 시간마다 암송합니다.

지난 한 주 간 날씨는 변화무쌍했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학교 생활 속에는 살짝씩 흥분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를 두 개 꼽자면, 첫째, 학교에서 어린이날 선물로 화요일에 영화관 한 관을 대관하여 꾸러기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한 것입니다. 교사와 어린이 대부분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영화관에 간 것이어서 무척 좋았어요. 물론 영화도 재밌었구요!

두 번째는, 목요일에 있었던 멋 부리는 날! 작년에 이 행사를 한 번 쉬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2년만에 해서 그런지 더 열심히 멋(!!!)을 부려 보았어요.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더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별로 안전한 캠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행복하겠죠??!!^^

< 교사 : 정승희 >

### 멋쟁이학교

이번주 멋쟁이들은 가정학습 기간으로 지냈습니다. 코로나 검사 후 학교로 들어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기를 기도해주세요.

4학년은 한달살기 중입니다. 박물관, 체험학습, 경기 관람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도 멋쟁이의 생활과 모습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스스로 다음 일정을 계획해보고, 식사를 만들어서 먹는 등 학교에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던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익숙한 장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장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돈희 >



##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꿈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뒤를 이어 가신 아버지는 자기애가 너무도 강하시어 어머니와 나를 참 많이 고생시키셔서 지금도 그다지 그리지 않고 아직도 조금은 원망스러운 반면 어머니는 늘 보고 싶고 그 따스했던 손길이 늘 그리롭다.

나는 겉으로는 무척 조용하고 순해서 친척들은 내 이름 보다는 순동이로 기억할 정도로 착하게 보였지만 그닥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아니었다. 아마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난 중학교도 졸업 못했을 것이다.

자퇴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눈물로 나를 도와주신 분이 어머니였다. 어머니도 만석지기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딸이란 이유로 배움이 없으셔서 많이 서러워하셨다. 어릴 때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단 그저 교회에 가는 것이 좋아서,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다녔다. 그 때 보고 들은 것들이 내 자의식을 형성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자의식을, 내 자존감을 도와주신 분이 어머니시다.

중·고등학교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딸들이 공부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며 자퇴하고 돈 벌어 오라는 아버지를 막아주셨고, 대학 졸업도 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그러셨던 어머니가 늘 고맙고 아직도 그리롭다.

부모로 있는 지금, 그동안 자녀들에게 잘 해주려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음을 잘 안다. 앞으로라도 남은 삶 동안 아이들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다. 이미 아버지의 병환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이들인지라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원하는 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프지 않으려고 내 몸을 챙긴다. 잘 먹고, 많이 움직이고 손끝의 작은 근육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두뇌활동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나중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그리운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근자 사모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고후 5장 16-21절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기 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미얀마 군부에 맞서 출범한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GU)는 현지시간 5일 성명을 내고 군부의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방어군'(people's defence force)을 창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 장관회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민들을 유혈 진압해온 미얀마 군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끝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력을 즉각 복원하는 한편, 아웅산 수치를 포함해 임의로 체포한 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민들레공동체>

- 1) 민들레 대학이 시작되는 가운데 신입생모집이 잘 이어지고 재정이 든든해지도록
- 2)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계속될 수 있도록
- 3) 베이커리, 양계, 체험학습 등 공동체기업이 활성화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사랑방공동체의 자녀들과 아버지들을 위해
- 2) 방역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의료진들을 위해
- 3) 방모임에 잘 참여함으로 공동체가 안정될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한 여름의 장마처럼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언제나 찾아오는 봄 황사에 마스크를 여미기도 했습니다. 물론 좋은 날씨를 보인 날도 있습니다. 멋쟁이들은 한 주간동안 가정학습 기간으로 생활했습니다. 어린이들은 5월 4일에 멋 부리는 날로 제각기 재미있는 복장들을 하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생활 공동체 식구들은 함께 공동체 밭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작물들을 심을 때마다 좋은 결실이 맺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재훈 전도사 >